

‘평화의 향기를 세상에’, 어울림마당 펼친다

전북불교계, 3월 13일 불기 2559년 봉축일정 확정

전북불교계의 부처님오신날 봉축 일정이 윤곽을 드러냈다. 전북불교계는 3월 13일 전북불교회관에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위원회’를 구성하고 불기 255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일정을 확정했다.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보문종, 용화종 등 각 종단 대표스님들과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등 각급신행단체 대표들은 전북불교계는 봉축위원회를 구성하고 봉축위원장에게 김계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을 선출했다.

봉축위원회 상임고문에는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수석부위원장에는 태고종 전북총무원장 도광 스님, 집행위원에는 금산사 총무국장 원재 스님과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등이 위촉됐다. 이와 함께 세부 행사계획안에 따라 총 1억 2천만원의 예산안이 의결됐다.

행사계획안에 따르면 불기2559년 봉축

주제는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으로 4월 25일~5월 25일까지 전라북도 내 각 지역에서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된다.

먼저 4월 25일 전주 종합경기장 광장에서 전라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안녕, 전북불교의 발전을 기원하는 봉축 기원탑 점등식을 시작으로 5월 2일 전북어린이 큰 잔치, 35사단 연등제, 입실 6탄약장 연등제, 전북불교합창제, 청소년모악축제 등이 각 지역에서 열린다. 5월 23일에는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전라북도 사부대중 3천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연등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전북봉축위원회는 전북지역의 각 도시 주요도로에 봉축 가로연등을 설치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대형 선전탑을 세울 계획이다. 부처님 오신 날을 전 도민이 함께 축하하고 즐기는 축제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불교문화행사로는 전북불교회관에서



지난 2014년 열린 전북불교 봉축행사 모습. 수륙재 형식으로 마련돼 높은 호응을 받았다.

연등만들기 대회와 부처님오신 날 봉축 교리경시대회가 개최된다. 이밖에 전북 주요 도시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크고 작은 연등축제가 진행된다. 또한 각 군부대 장병들을 위한 위문법회와 교도소 방문 등 여덟고 그늘진 소외계층을 위한 행사도 마련된다.

전북 봉축위원장 성우 스님은 “장기간에

걸친 경기체제로 고통을 호소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다”며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 행사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며 부처님이 오신 참 뜻을 되새기는 경건하고 여법한 봉축행사가 될 수 있도록 사부대중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자비의쌀 나누기 호남지역 ‘활발’

광주불교환경연대, 18일 1800kg 전달

지역사회단체활동을 위한 자비의 쌀 나누기가 화제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입)는 3월 18일 ‘8회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활동가 자비의쌀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광주지역 여성단체, 환경단체, 청소년단체, 교육단체, 인권과 복지단체, 통일단체 등의 38개 단체 40명의 활동가에게 1600kg, 헌법재판소로부터 해산당한 전 통합진보당 활동가 5명에 200kg의 쌀 등 총 1800kg을 쌀을 전달했다.

지원식에는 공동대표 행법 스님, 무등 스님, 나무술대표 지장 스님을 비롯해 지원대상 단체 실무자 30여명이 참여했다. 자비의 쌀은 지원식 후 각 단체 실무자에게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쌀은 광주 금산사, 비전사, 동원사, 세심정사, 연화사, 천룡사 등 광주전남지역 14개 사찰에서 후원한 쌀로, 각 사찰의 정월기도에 신도들이 시주한 쌀이다.



전달식에서 무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절 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나눔”이라며 “나눔은 지역과 사회, 그리고 자신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많은 불자들이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자비의 쌀 나누기를 진행해 8년간 총 11,800kg의 쌀을 전달하고 있다.

이해도 운영위원장장은 “물질 위주의 이기적인 세태 속에서도 묵묵히 사람사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위해 애쓰는 활동가들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마이산 탐사, 지역 청소년에 장학금 전달

‘갑룡장학회’ 통해 20년간 지원, 3월 17일 29명 학생 도와

150년 전 신비의 돌탑을 자랑하는 진안 마이산 탐사(주지 진성)가 지역의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3월 17일 진안 전문문화전수관에서 열린 장학금 전달식에는 진안여중 전선영 학생 등 29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다. 탐사는 1994년 갑룡장학회를 창립해 지역청소년들에게 총 2억여 원의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청소년들은 진안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추천 받은 학생들로 학업성적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평소 지역의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왔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탐사 회주 혜명 스님, 진성 스님, 진송 스님, 정혜 스님 등 탐사 대중스님

들과 이항로 진안군수, 김훈 전북자원봉사센터장을 비롯한 지역 기관장과 나누우리 봉사단 등 2백여명이 동참했다.

탐사 회주 혜명 스님은 “적은 액수지만 20년간 꾸준히 장학금을 전달해 오고 있다”며 “장학금 수혜 학생들이 사회의 기둥으로 성장해서 기부문화, 배움 문화, 보시 문화의 정착을 위해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성 스님은 “앞으로 2회 지급하던 장학금을 내년부터는 1회로 축소하는 대신 장학금액을 대폭 확대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금산고, 전북대박물관과 인재양성 MOU

전라북도의 유일한 불교 종합학교인 동국대 사범대학부속 금산고(교장 조영석)가 전북대 박물관과 인문학 기반 창의적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월 12일 금산고등학교에서 열린 이번 업무협약에는 금번하는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학습자 양성을 위한 기회제공 프로그램이 포함됐다.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금산고와 전북대

박물관은 다양한 인문강좌를 개설한다. 전북대 인문과학대학과 사회과학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30시간가량의 인문학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인문학 프로그램에서는 학생 희망을 반영한 소논문 제작 활동도 진행된다.

협약식에는 금산고 조영석 교장, 공동 호 전북대 박물관장(전북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을 비롯해 15명의 금산고 학생들이 참석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도심 속 수행문화 체험공간 마련돼

광주에 불교 힐링공간인 ‘MOST 행복센터’가 문을 열었다. 광주 광덕사(주지 효진)는 3월 19일 설법전에서 ‘MOST 행복센터’ 개관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관법회에는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 광주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법일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2백여명이 동참했다.

개관식에서 광덕사 주지 효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MOST 행복센터는 명상 등을 통해 마음을 어떻게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을 배우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지선 스님은 법문을 통해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삶의 본질적인 것에 의문을 갖는다”라며 “도심에서 수행을 통해 성인의 가르침에 의지하면 일상의 많은 고민들이 쉽게 풀릴 수가 있다”고 강

조했다.

‘MOST 행복센터’는 자연생활건강연구원, 마인드케어평생교육원, 언론기관 ‘행복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서는 ‘스트레스시대 마음건강회복’ 프로그램과 건강한 먹거리 생산, 자연건강 음식문화 선도 캠페인, 불교의 새로운 사회소통 모델 연구 등이 진행된다.

효진 스님은 “3월 26일 첫 개강을 하는 마인드케어 평생교육원은 마인드케어 래스 일반과정과 전문가과정 등이 운영된다. 또한 녹색식물을 활용한 그린인테리어, 연·두부·콩나물·인도커리 요리를 배울 수 있는 자연건강음식교실, 템플스테이·숲치유센터 등을 진행할 자연건강 지도사 과정도 개설된다”라고 설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완주 송광사, 전북35향토사단 수계법회

완주 송광사(주지 법진)가 전북 향토방위를 책임지는 35사단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3월 15일 35사단 호국충경사 법당에서 열린 이번 수계법회에는 송광사 회주 도영 스님이 법사로 나서 3백여 장병에게 계를 전했다.

수계법사로 등단한 도영 스님은 ‘존해 파멸’ (尊海波平)을 주제로 “바다도 존중하면 물결도 잔잔해진다”며 “2년 남짓한 군 생활동안 동료들을 서로 존중하며 군

복무에 임한다면 건강하고 보람된 군 생활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최근 군부대의 잦은 사고로 부모님들의 걱정이 크다”며 “수계장병들은 정신무장을 새롭게 하고 성실하고 건강하게 군복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회 후 전북사대 부교 단스동아리 ‘네이팜 그레이스 예술단’의 공연이 이어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금산사, ‘붓다로 살자’ 실천 도량 선포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사진 왼쪽)이 결사본부 총괄부장 가섭 스님과 함께 교구본사 최초로 ‘붓다로 살자’ 도량을 선포하는 헌법식을 진행하고 있다.

김계 금산사(주지 성우)가 교구본사 최초로 ‘붓다로 살자’ 실천도량을 선포했다. 금산사는 3월 14일 대적광전에서 성우 스님, 조계종 자성대제신결사본부 총괄부장 가섭 스님,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이상봉 사무국장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붓다로 살자’ 실천도량 선포식을 봉행했다.

이날 ‘붓다로 살자’ 실천도량 선포식에 동참한 대중들은 생활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부처님 생각과 행동대로 실천하기로 다짐했다.

가섭 스님은 중정 진제 스님 친필 휘호 ‘붓다로 살자’를 전달하고 금산사 사부대중이 큰 권력으로 붓다로 살아갈 것을 당부했다.

성우 스님은 법문을 통해 “붓다로 살아가려면 모든 공덕을 성취하고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행동을 해야한다”며 “모

든 사람이 부처가 되는 그 사회가 불국토고 극락세계이니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불국토로 만들고 이 순간부터 부처로 살아가자”고 당부했다.

김백호 신도회장이 낭독한 붓다로 살자 발원문을 통해 “우리 모두가 붓다임을 한시도 잊지 않으며 온 세상이 생명평화공동체가 되는 그날까지 붓다로 살기 위해 힘 없이 정진하겠다”고 발원했다.

이어 △삼귀의와 오계를 생활화합시다. △일체중생을 공경합시다. △사홍서원을 실천합시다. 는 3대 실천 강령을 제정하고 일일수행에서 정진해 갈 것을 다짐했다.

금산사는 붓다로살자 실천도량으로써 지역에서 사회적 역할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지역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을 계획중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은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설법전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 ~ 8:30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 (2)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연구소 (소장: 처명)

靑雲天氣轉換秘法 (청운천기전환비법)

한국풍수지리사상 처음으로 조상 묘(墓)의 수맥파를 이장(移葬)없이 생기(生氣)의 명당(明堂)으로 전환시키는 청운천기전환비법(靑雲天氣轉換秘法) 탄생(誕生)!

조상의 묘(墓)로부터 음기(陰氣)의 수맥파가 자손의 혈맥(血脈)으로 흘러 냉기(冷氣, 저체온)를 유발시켜 각종 암, 우울증, 정신분열, 빙의, 성인병등 난치병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나, 현대의학에서는 가족력이나 유전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집안에도 음기(陰氣)인 유해파를 생기(生氣)로 완전히 전환(轉換)시켜야 보다 빠른 치유와 사업성취가 가능(可能)하다는 것이 소승(小僧)의 오랜 시험(試驗)으로 입증(立證)되고 있습니다.

선친이나 자매, 형제 중에서 같은 암(癌)이나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거나 사업부진, 가정불화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필히 조상의 묘(墓)나 본인이 직접 수맥파 검사를 받으셔서 (현장 방문없이 전화상담으로도 확인가능) 조상묘(7대까지)의 백골(白骨)에서 자손의 혈맥(血脈)으로 흐르는 수맥파를 직접 확인하여 유해파로 인한 음기(陰氣)의 조상의 묘(墓)를 이장(移葬)없이 현장에서 즉시 생기(生氣)의 명당(明堂)으로 모시고, 가족건강과 가정평화를 이루시고 조상(祖上)께 효도(孝道) 하십시오!

건물, 가정의 수맥파도 현장에서 100% 차단!

만약 당신이 수맥파 위에서 잠을 잔다면 당신은 이미 병(病)들었거나 병들 위험이 매우 큼니다.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580-1번지 / 전화 031-595-8767
善財寺 靑雲 합장